

중부권

적자 공중목욕탕 어찌할꼬

전남 먼단위 대부분 운영비 감당 못해 '애물단지'로

보조금 지원 확대 등 근본대책 필요

현재 전남 각 먼 단위에 설치된 공중 목욕탕이 경영 수익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경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일선 먼단위 농어촌 지역에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 시책 일환으로 공중 목욕탕을 건립, 주민자치회나 해당 면 변영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중 목욕탕이 연료비·전기료 등의 운영비 과다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에 4억원을 들여 166.59㎡ 규모로 지어진 강진군 병영면 공중 목욕탕의 경우 해당 지역단체인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한해 운영된 경영상태를 보면 연 이용객 수가 2만7531명으로 ▲ 무료 이용객 7184명 ▲1000원 이용객 1만3917명 ▲2000원 이용객 6430명 등으로 수입은 총 26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출은 5593만 원에 달해 군단위에서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2000만 원을 포함해도 900여 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다.

또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칠량면 공중목욕탕 역시 3개월간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이용객 4691명 가운데 무료와 1000원 이하 이용객이 무려 81%에 달해 이용료 수입이 겨우 435여 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기료·수도료·연료비·인건비 등의 운영비 충당도 못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영면 공중 목욕탕은 현재 800여만 원의 전기료(시아 전기) 미납으로 전기공급이 끊겨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강진군은 2009년 900여만 원의 적자 분을 올해 지급해야 할 형편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4개의 공중목욕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0여년전 강진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도암면 공중목욕탕은 운영 1년 만에 운영비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흥지역의 4개면(용산·장동·유치·장평면) 공중목욕탕 운영실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006년에 도·군비 2억원을 들여 시설된 용산면 복지도시내 목욕탕과 장동면 공중 목욕탕의 경우 월 평균지출이 23만원과 17만원대이다. 하지만 수입은 15만원대에 불과해 날로 수리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폭이 늘어 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자치회나 변영회 측이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병영면 목욕탕 관리책임자인 H씨는 "공중목욕탕 이용객이 노약자나 장애인·기초 수급자가 대부분인 농어촌 실정을 감안, 이들에 대한 이용료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1~6급) 무료 ▲65세 노인·어린이 1000원 ▲일반인 2000원을 받도록 공중목욕탕 요금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남철희기자 kykim@



무인헬기 방제 대기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벼 병해충 발생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고충을 토론했다.

임성훈 나주시장 직원메일 통해 현안 고민 토로

임성훈 나주시장이 지난 4일 전체 직원들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고충을 토론했다.

임 시장은 "시 예산은 공공성이 우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자문해 본다"고 밝혔다.

임 시장이 고심하는 현안사업은 위탁운영중인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해 ▲다목적 체육센터 ▲축산현생태공원과 배매공원 조성 ▲미래산단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임 시장은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전념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희기자 srchoi@

"광주호 독 높이면 가사문학 수몰"

환경단체·주민들, 농어촌공사 사업 반발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공사에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민행동은 5일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보다 2.6m 독을 높이는 광주호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총저수량은 2만890m에서 2만6530m로, 광주호 평균 수심은 2.57m 증가한다"며 "독높이기 사업으로 소재원 등 가사문학의 산실은 물론 도로·농경지·호수생태공원이 함께 수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독높이기사업 대신 기존 저수지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현재 규모에서 저수지의 남은 물을 하천유지 용수로 흘려보내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광주댐 제방은 2.6m를 높이지만 물넘이 시설을 기존 자연 율령(越嶺)식에서 수

문식으로 변경해 실제 수위는 1.1m 상승한다"며 "이 경우 주민이 우려하는 문화재 침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수생태공원은 61%가 광주댐 현 호수위 부지에 계획돼 있어 호수위 1.1m 상승시 2.1ha(생태공원의 11%)가 물에 잠기게 돼 존치 또는 인근 부지확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현재 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6년 준공된 광주댐은 노후화로 인해 2007년 안전 진단결과 집중호우시 붕괴가 우려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보강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향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초 사업착공에 들어오는 2012년 12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

山水 뮤지컬 '영암 아리랑' 무산 되나

무대 설립 토지 매입 예산 등 의회서 전액 삭감

영암 월출산을 무대로 한 산수(山水) 뮤지컬 '영암 아리랑'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영암군의회가 토지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자 영암읍 개신리 사자 저수지에 월출산 사자봉의 위용과 자연 풍광을 무대로 세계 최고의 특수조명과 특수 음향시설을 갖춘 산수 뮤지컬 영암아리랑 무대(조감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영아트엔터테인먼트(대표 백광준)와 산수 뮤지컬 영암아리랑 공연작품 개발

과 공연예술인 양성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 환경부는 사유지를 사들여 대체토지를 제공 하는 조건으로 저수지 일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줬다.

그러나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에서 대체 지정 토지 매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5억원과 산수뮤지컬 선진지 견학비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보라미 예산결산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관심 여부와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교비만 150억원이 투입되는 산수 뮤지컬 관련 사업비의 경우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약속한 다음달 15일까지 대체토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공원구역해제 효력이 사라져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확보해 둔 2억원의 예산 집행 문제를 의회와 협의하고 있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성희기자 lsh@



세 얼 굴

"화합·소통으로 군정발전 이끌 것"

정 광 덕 영암군 부군수

"화합과 소통으로 군정발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정광덕(56) 영암군 부군수는 "중요와 회의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취임발표를 밝혔다.

무안 출신인 정 부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

으며 지난 1979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재산관리담당·농업기반담당·행정혁신과장·세무회계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봉자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성희기자 lsh@



광산구 인사교류에 거는 기대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은 추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안은 분청 선임 사무관과 일선 동의 풀고 패기 있는 사무관(동장)을 교류시킨다는 것이 핵심.

이를 통해 분청의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대민 행정의 최첨단인 일선 동사무소에는 경험 많은 선인 사무관을 배치해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구 부청에는 선임

민선 5기 들어서 한때는 조직개편 이후 세대적인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사권자가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공언했다는 말이 수차례 전해지면서 공직사회가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취임 초에는 다 그랬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공무원들에게 인사는 큰 관심사다. 인사를 통해 조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민청백제에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wtkee@kwangju.co.kr



기원태 (중부취재본부 기자)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를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동 / 로얄층
▶112동 1102호 ▶113동 1004호
▶112동 1201호 ▶114동 1101호
▶112동 1202호 ▶114동 1301호
▶112동 1302호 ▶114동 1401호
▶112동 1402호 ▶123동 402호
최대할인금액 6천만
주변 소풍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서 투자기회 상승 기대 최근 대림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입주주민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탑공인중개사 ◎ 대림124호 후로 입주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현대공인중개사
토지매매
▶ 광산구 수영동 자연녹지 매매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월동촌 공업지역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광충 강도보면 대지 매매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개별공사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사육직할
▶ 마복동 대로변 토지 매매
지하철 사령실 뒤편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매매가 7억 8천만원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신수동 1744㎡(528평) 매도가 1억8천만원
막곡동 645㎡(195평), 6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남평토지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접, 잡종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대지가 2억9천만원
건물매매
▶ 수익성 좋은 원룸상가 매매
쌍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662㎡(200평)
1층상가 2층, 3층, 4층, 원룸, 투룸, 매매가 7억8천만원
보통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음
▶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쌍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4억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공장 창고 건물매매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비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매가 7억 8천만원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남구 서동 대지 467㎡(141평) 건물은 50평과 101평 2동 5실.
공시지가 4억5300만원 매도 3억1500
▶ 단원동 상업지역 249평 공시지가 매도 1980만원
중원동 571㎡(171평) 대지 27㎡(8.2평) 건물 매도 2억1500
▶ 동원동 대원상당 대지 53㎡(15.9평) 190 공시지가 19948원, 대출 11억 11억 18억
4층건물 대지72, 건물 200 공시지가 3억 매도 2억8천
▶ 신안동 상인지 310㎡(94 공시지가 3억 매도 2억4천
▶ 마복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9억 매도 5억3천
▶ 대지, 두암동 소밭도로 776㎡(233평) 1억9천
▶ 홍창동 5기 5층 건물 332평 156 공시지가 3억 매도 5억
▶ 금남동 창원동 뒤 주택 영암읍 직할 공시지가 매도 8400만원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6건평 173 건물 3억 매도 6억6천
▶ 북포시 대지 413평 3층건물 공시지가 5억2천 매도 6억2천
▶ 금남로 4기 대로변 대지 237 건평 1463 공시지가 40억 3천 월부는 공실이고 전세 5억3천 월세 2억 389억
■매도·교환
▶ 두암동 4차선도로 136평 교회, 병원, 학원용 직할 평당 370만원
▶ 원동 관주역 앞 대지 108평 건물 383평 부부 17개 월당 6개
27는 공실 전세 8500 월 650 매도 7922
▶ 모일 누문동 대지 103평 건물 336평 건축가능할 평당 9944천
▶ 모일 송정동 대지 290평 건물 367 건축가능할 평당 9946천
▶ 생산녹지 서구 서하동 660평 광충동 대지 4944천
▶ 생산녹지 창고 등 대용도 평당구 비아 2722평 13억
▶ 충효동 유실수 있는 땅 575평 대지 10평로만 1억3천
▶ 전월주거지 송산유원지 박소동 399평 시설
적합 분양가능 1억 8500
▶ 북구 송동 대지 147평 전월주거지 적합 7900만원
▶ 생산녹지 서구 덕동동 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9천만원
▶ 자연녹지 706평 매월동 서평동 부근 대지 9998만원
▶ 화순군 농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이할, 1900만원
▶ 화순군 한현면 관리지역 중 임야 13,862평 광충 동 대용도 평당1200원
▶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1631 평과 창고, 공시지가 14억 3천 총고는 1년
사급세 2200만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만원
▶ 원동건을 화정동 대지 91평 건물 145평 원룸 10개 부부 3개 쓰러들 2개 주
택임고 전세 1억원 월300 매도 5억3천 주책은 주인이 사용
▶ 고을상 영암지 관산구 우산동 998평 영암한정 총평 8억 7천
■원룸·다세대부지
▶ 월산동 라인 APT 부근 1329㎡ 402평 평당 132만원 5억 4천
▶ 동산동 도지사 관사 부근 1239㎡ 375평 평당 132만원 5억
T. 222-4994, 010-2632-58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7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플러스부동산 (양대사업 전문업소)
년 수익률
10%이상책임보장
1억직접투자년
1000만원이상소득가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영리 계획 작성!
전국·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지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은 투자 가치가 없다
상담
전화 T.082)226-3377
FAX.226-3399
(부산동, 남구 연희대역전 건너 화랑로 87가)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고 도시계획 변경)
※중형빌딩/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빌딩지구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T.681-5888 H.011-801-6354
(사평주역 건너 순천도로변)

대인동상임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부와 원일 분 손번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남에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남에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TEL 011-602-2532
(중주동 삼선로, 대인동 순천로 2가)